

우크라이나 난민 긴급구호 월간 보고서

[2월 01일 ~ 2월 22일]

- 몰도바 내 파트리아 루코일 난민 센터 -

작성자 : Vladimir Rijcov

번역자 : 디노라 인턴

○ 몰도바 내 파트리아 루코일 센터 운영 현황

■ 현재 2월 1일~22일까지 몰도바 내 파트리아 루코일 센터가 77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.

임시 난민 센터의 난민 현황	
기간	2/01~2/22
· 어른	46명
· 어린아이	31명

- 몇몇 난민은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러 고향으로 갔음. 일부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음.
- 최근에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오데사에서 왔음. 그리고 한 NGO 단체가 센터를 방문하여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했음. 이 인터뷰에서 이 여성은 몰도바에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음. 그녀는 오데사에서 그들이 56시간의 정전을 겪었다고 했음. 전기가 없어서 난방도 안 되고, 온수도 안 나오고,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도 해줄 수 없었고 어둡고 추운 겨울에 3명의 자녀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음. 그녀는 우호적인 환경과 따뜻한 식사가 있는 센터를 발견해 너무 기뻐함. 남편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함께 오지 못했음.
- 파트리아 루코일에서 지내는 난민 모두가 센터 시설과 환경에 매우 만족함.
- 몰도바 시청에서 피난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어 피난소와 창고 청소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, 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고 각자 청소 당번을 맡아 피난소 관리를 하고 있음.
- 유일한 문제는 센터 청소용품이 빠르게 떨어짐





(사진: Vladimir Rijcov)

○ 참고 상황



(사진: Vladimir Rijcov)

■ 2월 1일~22일까지 총 4,690개의 물자가 분배되었음.

-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파트리아 루코일 센터 시스템에서 26,000가정이 등록되었음. 약 56,000명이 적어도 한 번,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물자를 배급받았음. 일부는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여기서 지내고 있음. 매일 평균 10명의 새로운 가족이 도움을 요청함. 그중 대부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 일할 수 없는 난민들과 너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임.

- 한 달에 평균 6,500개의 물자를 제공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센터가 다른 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음. 그러나 이 단체의 물자 지원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이며 그 후 예산이 없으므로 지원이 어렵다고 함.
- 지원하고자 하는 패키지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주 물자 지출 비용은 약 35,000~60,000달러임. 그 중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, 수요가 많은 물품은 이유식과 위생용품 (아기용 및 성인용 기저귀 등)임.